

성지에 관한 필수 정보

거룩함의 여정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순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지를 걸어나다며 복되신 어머니께서 요청하신 ‘거룩함의 여정’을 하도록 순례자들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모후께서는 성지의 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함과, ‘하나되신 성심’ 안으로 들어가는 영혼의 여정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성지와 눈물의 호수’에서 시작해서 ‘성 요셉 성지와 호수’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거룩함의 여정’을 이루는 각각의 소성지 / 경당의 기도들은 **마라나타 샘과 성지 순례 안내서** 53 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순례 안내서는 ‘아퀴나스 웰컴 센터’ 또는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에서 구매하시거나, 한국어 웹사이트 holyllovekorean.com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소성지 / 경당의 위치는 성지 지도를 참고하면 복되신 어머니께서 요청하신 여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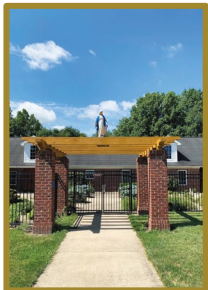
고통의 성모 마리아 성지와 눈물의 호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곳은 ‘눈물의 호수’라고 알려지게 될 것인데,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약속이 열매를 맺고, 내 은총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계획의 충만함이나 내 계획의 모든 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지만, 많은 것들이 천국이 이 성지를 위해 선택한 이 소박한 작은 성지에 달려있다.” (우리의 모후 - 1997년 8월 8일)

“영혼은 가장 먼저 내 고통스럽고 티 없는 성심 (‘눈물의 호수’) 안으로 인도된다. 여기서 그의 가장 두드러지는 결점들이 정화된다.” (우리의 모후 - 1999년 12월 12일)

정자의 성모님

“이 정자는 하느님께서 천상과 지상 사이를 이어주기를 바라시는 ‘거룩한 사랑’의 다리를 상징한다. 나는 이 정자에 오는 모든 이를 축복한다.” (정자의 성모님, 오후 6시 - 2004년 6월 5일)



거룩한 천사들의 호수와 경당

“나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각 계급마다 한 명씩 이 ‘천사들의 호수’ 주변에 와 머물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 왔다. 영혼들에게 수많은 은총이 베풀어질 것이다.” (우리의 모후 - 1999년 4월 3일)

“이 발현 성지에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배치되어 있으며, 각 천사는 영혼 구원을 위한 특정한 임무를 띠고 있다... ‘간증의 집(House of Testimonies)’에는 체험 사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무시키는 천사가 한 명 배치되어 있다.” (복되신 어머니 - 2009년 8월 2일)

하느님 아버지 경당

“나는 내 작은 경당에 처음 들어오는 이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만 하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부성적 기쁨’을 넣어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 - 2019년 5월 1일)

“내 ‘부성적 기쁨의 축복’은...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뉘우치는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 - 2019년 6월 1일)

성 미카엘 대천사의 성지와 호수



“성 미카엘 대천사의 호수’는 ‘남은 신자들’을 위한 특별한 은총을 담고 있도록 따로 선정된 곳이다. 성 미카엘 대천사는 새로운 시대의 선봉장이기 때문이다. 이곳으로 와서 축복을 받아 진리 안에서 강해져라.” (복되신 어머니 - 2005년 10월 9일)

“하느님께서서는 내 ‘진리의 방패’가 모든 이의 마음을 덮기를,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승리 때에는 세상의 마음을 덮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지에 있는 내 호수에서 이 성지를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느끼는 천상적 평화는 내 보호 아래 있습니다. 나는 이곳으로 나를 찾아오는 모든 이를 내 ‘진리의 방패’로 감싸줍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 - 2014년 9월 29일)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

“나는 내 자녀들이 ‘하나된 성심의 별판’을 내가 매우 아끼는 곳이자 순례의 목적지로 알기를 바란다. 나는 이곳에 오는 모든 이를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으로 환영할 것이다.” (우리의 모후 - 1996년 2월 14일)



마라나타 샘

“나는 오늘 ‘마라나타 샘물’은 이 대륙에서 ‘루르드 샘물’과 같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린다. ‘마라나타 샘물’과 ‘루르드 샘물’은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는 은총에 있어서 유사하다.” (우리의 모후 - 1995년 5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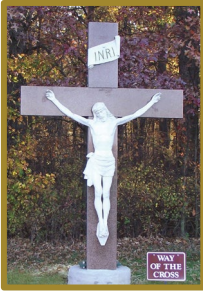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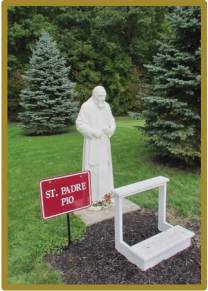
“내가 아끼는 이곳으로 오너라. 이곳에 발을 내디뎌라. 나의 샘물을 맛보아라. 너희의 양심이 너희 앞에 숨김없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거룩한 사랑의 여정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너희 앞에 드러날 것이다.” (우리의 모후 - 1998년 7월 10일)

하나되신 성심 성지와 하나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

“사랑하는 자녀들아, 인내로이 이 (‘하나되신 성심’ 성지)를 건설해 주어서 고맙다. 많은 이가 이곳에 올 것이며, 그들의 삶과 마음이 바뀔 것이다.” (복되신 어머니 - 1998년 12월 2일)

“바로 이 신심을 통해서 완고했던 마음도 탄원을 하게 되고 은총에 감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 2002년 11월 11일)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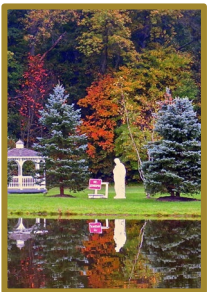
“나는 모든 이를 축복하면서 ‘십자가의 길’ 입구에 서 있습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 2013년 9월 23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는 이들은 위로와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많은 평화가 ‘십자가의 길’에서 주어질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과 동행하겠다.” (우리의 모후 - 1997년 11월 12일)

“모든 승리와 개선은 ‘십자가의 길’에 둘러싸여 있음을 깨달아라. 그래서 성지 뒤쪽에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후 - 1999년 12월 12일)

성 요셉 성지와 호수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에 있는 내 성지에 오는 아버지들은 자신의 가족을 더 잘 돌보도록 지혜와 신중함으로 기름부음(anointing)을 받게 될 것이다.” (성 요셉 - 2014년 6월 1일)

“오늘 너희에게 말하지만,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에 있는 ‘요셉 성인의 성지’를 순례하는 이들은 가정의 일치에 위한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 2014년 6월 1일)

(As of April 9, 2024)